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해안재해 대응 위해 손잡는다

- 국립해양조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업무협약 체결(4.22.)
- 해수면 상승 등 미래 해안재해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 강화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정규삼)과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오금호)은 4월 22일(화) 해안재해 피해저감 연구와 기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으로 해안지역 침수 피해가 잦아짐에 따라, 양 기관이 협력해 해안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해안재해 예측·평가기술 및 해양조사·관측 정보 공유 ▲미래 해안재해 관련 연구 협력 ▲정기 세미나 등 학술정보 교류 ▲위험지역 현장조사 등을 공동 수행한다.

정규삼 국립해양조사원 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해안재해 대응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앞으로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해안재해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기술과 정보를 연계해 국가 해안재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국립해양조사원)	책임자	연구실장	서광호 (051-400-4101)
	해양과학조사연구실	담당자	연구사	이화영 (051-400-4366)
	행정안전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	책임자	센터장	박병철 (052-928-8500)
	지진방재센터	담당자	연구사	박형성 (052-928-8550)